

가정 내 전기제품의 장기사용과 소비자안전

◆ 전기제품의 내용연수

- 전기제품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또는 내구연수라고 하는데 성능저하, 부품의 손상 등으로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기간 또는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에서도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며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의 주요 내구 전기제품의 내용연수가 대략 10~11년인 것으로 조사됨

구분	한국		일본	독일
	연구사례1	연구사례2	연구사례3	연구사례4
냉장고	10.3	10.1	11.0	13
TV	10.8	10.6	9.6	8
세탁기	8.6	10.0	8.5	11.4
에어컨	-	11	11.0	-

- 1) “전자제품의 환경정책 개선방안 연구”(한국전자산업진흥회, 1995)
- 2) 한국전자산업진흥회, 1999
- 3) “주요내구소비재의 구입 및 교환 현황조사”(일본경제기획청, 2000)
- 4) “폐기물예치금·부담금요율의 적정 조정방안에 관한연구”(자원재생공사, 1995)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실태조사 2001. 12월 참조

◆ 일본의 주요 가전제품 평균사용연수

- 경제산업성이 가전제품재활용법 시행 후 2001년에 지정된 인수장소에서 인수 받은 다 쓴 가전제품 4 품목(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의 사용연수를 보면 에어컨은 14년, TV는 12.5년, 냉장고는 13.4년, 세탁기는 11.3년으로 나타남

구분	1997년 추정평균사용연수	2000년 추정평균사용연수	평균사용연수의 증감
에어컨	15.6	14.0	-1.6
컬러텔레비전	11.8	12.5	+0.7
냉장고	12.1	13.4	+1.3
세탁기	10.9	11.3	+0.4

- 한편, 내각부의 소비동향조사에 의하면 새로 구입하여 가전제품을 교체할때까지의 평균사용연수는 에어컨은 12.5년, TV는 10년, 냉장고는 11.73년, 세탁기는 9.13년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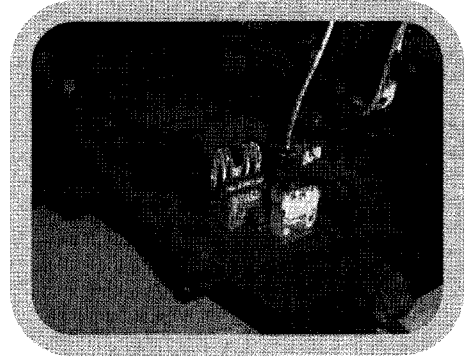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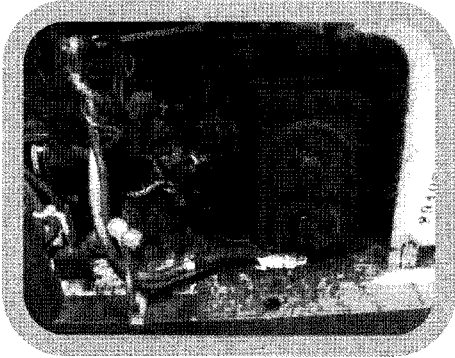
구분	1998~2000년 추정평균사용연수	2001년 추정평균사용연수	평균사용연수의 증감
에어컨	11.87	12.55	+0.68
컬러텔레비전	9.78	10.18	+0.40
냉장고	11.71	11.73	+0.02
세탁기	9.15	9.13	-0.02

- 경제산업성조사에 의하면 가전제품 재활용법 시행 후 에어컨은 평균사용연수가 짧아졌지만,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에 대해서는 평균사용연수가 약 반년~1년 정도 늘어남
- 또한 내각부의 소비동향조사에서도 가전 제품재활용법 시행 후 냉장고와 세탁기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에어컨 및 컬러텔레비전에 대해 평균사용연수의 장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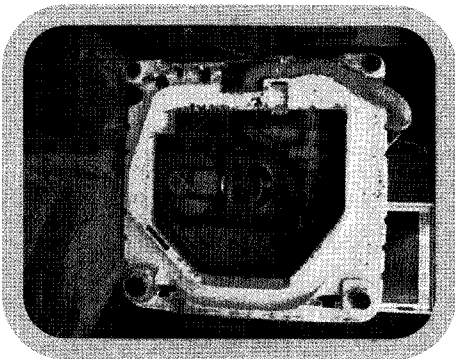
◆ 전기제품의 장기사용이 소비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 TV,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내구재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이 증가하거나, 부품이 약해지는 등의 열화현상이 진행되는데 이상증세가 있거나 고장난 제품을 제대로 고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과 쾌적한 사용을 위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실제 생활주변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제품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품에 대한 애착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소홀하거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점검이나 수리를 받지 않는 등 이상증상이나 사소한 고장 등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전기제품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용해 온 전기제품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일상적인 점검 및 이상발생시 서비스센터에 신속한 점검 및 수리를 받아야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음

장기사용 전기제품 관련사진



[TV내부사진]



[세탁기의 내부]

- 실제 '가정 내 전기제품 안전실태 조사'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자가구의 28.8%가 이상 증세가 있는데도 제품을 점검 받지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참고로 2001년 국내 전기화재통계에는 가전기기의 화재원인으로 취급불량, 관리소홀, 노후화 등에 의한 것이 화재발생건의 89.2%가 되는 것으로 집계됨(2001 KESCO통계)
- 따라서 장기사용 전기제품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일본의 장기사용 전기제품의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마크제도

- 일본 전기제품협회에서는 「전기제품안전확보를 위한 표시 가이드라인」에 장기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안전점검 장려를 통한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장기사용전기제품에 대한 안전마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전기제품안전마크제도는 『제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상시의 조치』에 관해서 사용자에게 의한 점검과 판매점에 의한 점검 및 조치(청소, 수리)의 필요성을 안전점검마크, 캐치플레이즈, 그림, 문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참고로 일본 전기제품 취급설명서에는 장기사용 전기제품 안전제품관련 주의사항 및 애정마크를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기간 등 제품보증기간표시 부분에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장기사용 안전점검 관련 사용설명서 표시에[도시바TV]

長年ご使用のカラーテレビの点検をぜひ!!

熱、湿気、ホコリなどの影響や、使用の度合いにより部品が劣化し、故障したり、時には安全性を損なって事故につながることもあ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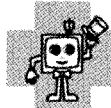
ご使用の際のような症状はありませんか

- 電源を入れても映像や音が出ない。
- 上下、または左右の映像が欠けて映る。
- 映像が時々、消えることがある。
- 変なおいがかしたり、煙が出たりする。
- 電源を切っても、映像や音が消えない。
- 内部に水や異物が入った。

● ご 使 用 中 止 ●


このような場合、故障や事故防止のため、電源を切り、コンセントから電源プラグを抜いて、必ずお買い上げの販売店に点検・修理をご相談ください。ご自分での修理は危険ですので、絶対にしないでください。

カラーテレビは、このように正しくお使いください。 ●電氣容量やコンセント形状は、製品に合ったものをご使用ください。



ちょっとした
心づかいで
テレビの安全

※詳しくは、4ページの「安全上のご注意」をご覧ください。



愛情点検

株式会社 東芝
映像事業部

장시간 사용하는 컬러텔레비전의 점검을 꼭!!

열, 습기, 먼지 등의 영향이나 사용 정도에 따른 부품의 열화 고장 등이 때로는 안전성을 잃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시 이러한 증상은 없었습니까?

- 전원을 켜도 영상이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 상하 또는 좌우의 영상이 잘려서 나온다.
- 영상이 때때로 꺼진다.
-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난다.
- 전원을 꺼도 영상이나 소리가 꺼지지 않는다.
- 내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

● 사 용 중 지 ●


이런 경우, 고장이나 사고 방지를 위해 전원을 끄거나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고 반드시 구입한 구매처에 가서 점검 수리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소비자가 임의로 수리를 하면 위험하므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컬러텔레비전은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전기용량이나 콘센트 형태는 제품에 맞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조금만 주의하는
마음으로
텔레비전의 안전

※ 자세한 것은 4페이지 「안전상의 주의」 참고하세요



愛情点検

주식회사 도시바
영상사업부

< 출처 : 가정내 전기제품 안전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자료) >